

선군 태양의 축복속에 내 조국 무궁번영하리

태양은 오늘도 선군조국을 밝게 비추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신다. 싱그러운 우리의 선군력사의 나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군민은 위대한 선군태양의 모습에서 천백배의 힘을 가다듬으며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영광찬란한 태양을 확인하고있다. 선군의 그 길에서 언제나 승리하라고, 무궁도록 영광떨치라고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시는 영원한 조선의 힘, 위대한 장군님 이시다.

우리 장군님 하고 추억의 문을 열면 두해전 선군철의 사연깊은 이야기 가 새겨진다.

그날 전선동부시찰의 길에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선군철을 맞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이날을 맞이하고보니 한평생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신 장군님이 더욱 그리워져 눈곱이 찢어 옵니다.》

장병들의 눈가에도, 장군님을 초소에 모신 자랑을 안고있는 어제날 병사였던 세 세대 지휘관들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다.

자신의 모든것으로 여기신 조국, 사랑하는 인민을 그 어떤 원수도 건드릴수 없게 하시려 아버지장군님께서 한평생 견고걸으신 선군길을 뚫어주시고 있을수 없는 그들이었다. 온 나라 인민도 격정으로 세차게 설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많고 많은가.

1990년대 후반기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잊을수 없는 나날이었습다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오늘도 울려퍼진다.

격정없이 돌이켜볼수 없다. 얼마나 준엄한 나날이었던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 경제난판과 자연재해가 앞길을 막아서도 끝까지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폐부보듯 느껴지던 그때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고백했으랴.

항일혁명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조선을 구원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죽음의 나락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으리라고 하신 라자구등판에 서세시는 심정이었고 수령님께서 대적의 포위와 축환의 고통을 《반일전투》로 이겨내신 천군명의 눈보라 소리를 듣고계시는 심정이었다. 그러한 력사의 순간에 우리 장군님 계시었다.

선군은 곧 자위라고 준엄하며 애국, 애족 이!

인민 선봉과 의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큰 결심을 다락초소로 찍으시어 선군정치가 조선의 후손대대의 전략적로선



불면불유의 선군혁명령도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0(2001)년 8월

임을 선언하시었다. 그때부터 우리 장군님의 주소는 사생결단의 전진길이었다. 그러나 그때만 인민이 다는 알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 선택하신 선군의 그 길이 얼마나 시련에 찬 고행의 길인지.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다 내다 보시었다. 인민이 고생하고 경제난판이 중첩되지만 반드시 이 길로 가야 승리의 종착점에 도달할수 있다는것을 그때 벌써 확인하고계셨었다.

이 나라의 무수한 길들마다에, 굽이굽이 뻗어간 령도자 아버지장군님의 선군의 자욱이 찍혀있지 않는 곳 있는가. 이른 새벽에도, 길고깊은 밤에도, 눈비 내려도, 찬바람 사정없이 몰아쳐와도 우리 장군님께서 족잡과 꿇기발을 드시며 인민군인들을 찾아 야전차를 달리고 또 달리신 그 모든 길들을 하나로 이어놓으면

그것은 그대로 그이의 선군혁명령도이다. 그 나날의 수많은 사연들을 이 작은 글에 다 담을수는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에 대하여 생각할때면 선군의 상징 철령이 뚜렷이 솟아오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철령을 넘어 최전연군부대들을 시찰하면서 선군혁명령도를 해했다고, 철령은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이라고, 누구나 철령을 어서서는 안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장군님 언제나 잊지 못하는 철령, 철령은 지도우에 평범하게 표시되어있는 령이다.

하지만 아버지장군님께서 위대한 혁명명세의 나날 제일 많이 넘나드신 선군의 상징이기에 모두가 잊지 못했다. 2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령을 넘으신 날은 진논까비가 쏟아진 뒤에서 가뜰이나 험한 도로상태가 많이 아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이 전진길을 알아낸 직접 차를 몰아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굽이 운전대를 잡으셨었다. 야전차 행렬이 철령을 가까이하자 일군이 더는 그 태로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 철령에서부터는 운전대를 넘겨주실것을 간청하셨었다. 철령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운전사들이 번속기를 1단에 넣고서야 넘었다고 하여 《1단 고개》라고 불리우는 험한 령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공언한 걱정을 한다고 하시며 더욱 질풍같이 차를 몰아 철령의 굽이길을 치달아오르셨었다. 이렇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밤에도 새벽에도 오직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험한 철령을 수없이도 넘으셨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에서 조국수호의 생새김이 아아났던가. 철령에 불빛이, 햇빛이 가득 차던지는

어느해 4월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태양결분위로 흥성이는 이날도 철령을 넘고 계시었다.

《장군님, 여기에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아직 철쭉꽃이 필 때가 아닌데 장군님께서 오실줄 알고 때이르게 피어났것 같습니다.》 감격에 젖은 목소리가 울리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굽이굽이 철령의 곳곳마다에 진달래와 어울려 아름답게 피어난 철쭉꽃들을 바라보시었다. 그러시고는 철쭉꽃은 원래 진달래꽃이 피었다가 필 때가 되어야 피는 꽃인데 이렇게 때이르게 피어났다고 말씀하시었다.

철령의 철쭉, 우리 장군님께서 있어서 철령의 철쭉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새봄을 앞당기는 길우에 만발하였던 백두산의 진달래처럼 선군승리의 새봄을 말해주는 상징이였다. 철령의 높고낮은 산밭들을 넘나드시며

선군조국을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께 언제나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철령졸업증을 드리고싶은 소원을 아뢰 인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었던가. 나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의 방편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병사들에게 가있습다. 나는 앞으로도 철령을 계속 넘을것입니다!

하여 철령졸업증을 팔내 드리지 못한 우리 인민이다. 무수히 솟아있는 선군의 산악들중의 한 령을 놓고도 이 나라 인민의 만복이 어떻게 꽃피었고 강성번영의 새 력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말할수 있는것이다.

지난 7월 전승절을 며칠 앞두고 고산파수능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받치기가 굽이 굽이 어려워는 철령아래에 대규포수능장이 건설된것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세계급지의 청춘파원으로 펼쳐진 고산파수능장의 력사의 첫 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 선군정정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뿌리고 가꾸신 행복의 씨앗들이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향기롭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령을 넘나드시던 나날에 태어나 만사함을 울리던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도 담고서 더 높이 울려나온다. 동서천리로 넘나들던 바람도 멈춰서면 마시령, 우리 장군님 넘나드신 이곳에 회한한 스키장이 선군시대의 맛을 자랑하며 뻗어내렸고 장군님께서 야전차의 차창으로 내다보시던 동해에서는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사회주의바다 향기를 실고 들려온다.

철령만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6,000여리의 눈보라강행군길, 성강과 라남, 강연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와 지해시스템의 성공과 같은 력사의 기적들이 다채만으로 이루어져 우리 조국을 세기의 상상봉우에 올려세웠다.

《장군님, 여기에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이 뜻깊은 선군절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사들이 웨치는 력사의 진리이다.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후승리에로 나아가는 천대오세에 계신다.》 사람들아, 오늘도 당도지면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다시금 삼가 우러러보시라.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선군조선의 앞날을 축복해 주신다. 태양같이 밝게 웃으시며 우리에게 끝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선군의 길로 여세계, 줄기차게 변함없이 나아가라고, 그 길에 조국의 강성번영이 이어가라. 본사기자 백영미

선군의 길에 빛나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렇게 기억하고 뜨겁게 말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언제나 조국수호전의 최전방에 계신 최고사령관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은 동지께서는 다짐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언제인가 전선동부의 최전방인 351고지를 시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자신께서 351고지 최전방초소까지 나갔다고 걱정한다는데 일 없다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일 한다고 위협하고 겁을 위협하고 안 가시어 되겠다는 가고,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을 위해 험한 길을 걸으시였지만 언제나 한걸음도 나쁘다고 안 가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다 걸으리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 그런 말씀으로 자신의 신변안전을 걱정하는 수령들과 일군들에게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사실상 준엄하였던 조국수호전의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신 최고사령부의 위치는 항상 전연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이 아니라 최전방이였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의 작전적의도와 지휘를 보장하는 전선의 직접적인 보좌단위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신께서 지니신 력사적사명과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시어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는 문제로부터 전사들의 생활상문제가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직접 현지에서 료해하시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식견, 조직력으로 어떠한 중대하고 복잡한 일도 가장 신속히, 정확하게 처리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시찰은 그러한 일상적인 사업의 연장이었다. 그것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특출한 실력과 정력으로도만 설명할수 없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혁명에 자신을 강그리 바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최전선에 계시었다. 여기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시종일관 전지하여오신 하나의 사업준칙이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사업을 보장해드리시던 나날 자신을 항상 최전선에 세우시고 모든 사업을 해나가지였다. 장군님께서는 스스로 지니신 그 의무를 한평생 다하시였으며 전선사령부라는 말을 뜨겁게 위시며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곤 하시었다. 하기에 텔레비전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시찰소식을 시청한 인민들이 장군님께서는 왜 최전연에까지 나가시였는가고 가슴아파한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위하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은 리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니... 유산사가 아닌 지금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전연을 찾으시는 것만은 제발 그만두실것을 간절히 아뢰는 일군들에게는 전연지대뿐 아니라 그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곳에도 가보아야 한다. 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충실할것이라고 단언하시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최전방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을 돌이켜보면서 그이께서 스스로 정하신 위치에 얼마나 희생적이며 애국적인 정신세계가 깃들어있는가를 절감하고 있다.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최고사령관이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적아대결이 첨예한 곳에서 최고사령관이 최전방을 중흥무전하며 나라의 안전을 위한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 지휘한 예는 통사고급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분대 앞마당에 크게 만들어 세워놓은 구호판에서 눈길을 멈추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맹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자라났습니다.》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를 시찰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분대 앞마당에 크게 만들어 세워놓은 구호판에서 눈길을 멈추시었다. 금시 발사되어 날아가는 로켓을 형상한 그림바탕에 《속도 전 앞으로!》라고 쓰고 거기에 의한 투쟁을 한사람같이 떨쳐나 설수 있도록 내용이 명백하고 설득력있게 하여야 한다고,

선군이 전하는 잊지 못할 지명들

오성산, 전진 있을수 없다.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이 국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시기 억수로 내린 소나비로 하여 쪽쪽 미끄러지는 승용차를 한치런치 미끄러지듯 버랑길을 오르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은.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전방지휘소를 찾아 전진길을 달린 군사령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나라의 령도자,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 최전방의 자그마한 지휘소가 위치한 험산오지를 찾았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는 없다.

152굴이의 오성산칼벼랑길은 오늘도 새겨준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이 얼마나 간고하였는가를, 사회주의 내 조국

판문점

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판문점은 적이 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있는 곳이다. 이 땅의 가장 예민한 열점중의 최대열점지대인 이곳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는가. 이른예마냥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없는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판문점초병들, 눈물을 흘리며 두손을 높이 쳐들고 환호하는 군인들의 얼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될군은 의지가 비껴있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오늘 인민군대에서 가장 중요

중대강화의 모습도 가르쳐주시며

이 구호판 보아도 이곳 군인들이 아버지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하루빨리 관철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잠시 후 한 병실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병실안의 이모저모를 살피보시고 나서 이 방에서 누가 생활하는가고 물으시었다.

구분대지휘관이 소대장동무들이 생활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구이께서는 소대장들이 하루일과를 끝마치고 저녁에 이 방에서 당의 요구를 알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한사람같이 떨쳐나 설수 있도록 내용이 명백하고 설득력있게 하여야 한다고,

한 구호는 노예가 되겠다는 가니면 자주적인민, 자주적인국권이 되겠다는가 하는것이다. 나는 동무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당부한다. ... 판문점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강인담대한 담력과 배짱에 대하여 음변으로 말해준다.

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패속정을 라시고 초도의 병사들을 찾아갈 때의 바다날씨는 더없이 험하였다. 배의 진동으로 활영이 재들까지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그때의 사나운 바다날씨에 대하여 짐작할수 있게 한다. 허나 짐재같은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바다를 바라보시며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소대장의 수준이 소대군인들의 수준이다. ...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소대장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게 하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맡고있는 전투임무가 중요하다고, 동무들을 맡고있는 전투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전투준비를 철저했다가 적들이 바다로 기여들면 회피해 담배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날에 하신 말씀은 중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해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이었다. 본사기자 정순학

본사기자 박철

